

東洋文庫 소장 『북송연의』 연구*

Transformation of *Bei Song zhizhuan* from the Toyo Bunko Collection

코바코바 울리야나 (Kobyakova Uliana)**

◁ 목 차 ▷

- | | |
|----------------------------|----------------------------|
| 1. 서론 | 4. 동양문고본 『북송연의』의
내용적 변화 |
| 2. 『北宋志傳』의 국내유입관련
기록 | 4.1 내용의 생략 |
| 3. 동양문고본 『북송연의』의
구성적 변화 | 4.2 내용의 축약 |
| | 4.3 내용의 재창작 |
| | 5. 결론 |
| | <참고문헌> |

<초 록>

동양문고 소장 『북송연의』는 중국 명대소설 『北宋志傳』의 국문 번역본이다. 본 책은 13권 13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02년에 서울 사직동에서 제작된 세책본 소설이다. 동양문고본 『북송연의』의 가장 큰 특징은 원본에 비해 구성적·내용적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北宋志傳』은 조선에서 국문으로 번역되어 유통되면서 우선 목판본에서 필사본으로 바뀌었다. 동양문고본 『북송연의』는 구성에 있어서 ‘회장소설’의 형태에서 벗어나 권책의 분류를 증대하는 조선후기 필사본 소설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 또한 내용에서는 세세한 묘사, 꿈, 대화 등을 생략 및 축약하여 사건에 중심을 두는 서술을 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관계, 악인형벌의 장면 등을 조선후기 창작소설에서 정해진 관념관 및 패턴에 맞게 재창작했다.

要語: 북송지전, 양가장전, 북송연의, 동양문고, 세책본, 번역소설, 변화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학자 펠로십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계명대학교 국어교육학과 조교수(kua@kmu.ac.kr)

접수일: 2016년 6월 1일 최초심사일: 2016년 6월 14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25일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the transformations of *Bei Song zhizhuan* (*Account of the Northern Song*) underwent during the late Chosŏn. This text is repeatedly cited in late Chosŏn records and lists from the seventeenth century. After transmission into the Chosŏn, this work was translated from vernacular Chinese to vernacular Korean; in this process it was converted from printed texts to handwritten copies. The Toyo bunko copy, a vernacular Korean copy from a book-lending shop, was the form available to late Chosŏn readers. This paper will show that the structure of *Bei Song zhizhuan* was changed to reflect the structure of the indigenous literary works circulated in transcribed copies; moreover, its content received certain adaptations that reflected the norms accepted in vernacular Korean fiction, those familiar to both compilers and readers. As a result, the distinctions between foreign and domestic literary works became minimal.

Key words: *Bei Song zhizhuan*, *Yang Jia jiang zhuan*, transmission,
book-lending shop, translated novels, transformation,
Toyo Bunko collection

1. 서론

조선후기 문학에서 소설은 주요 장르 중에 하나였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소설들이 활발히 생산되었으며 유통되었다. 이들 작품 중에는 창작된 작품도 많았지만, 국내에 유입되어 국문으로 번역된 명칭 작품도 일부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 소설들이 어떻게 번역되었고, 번역소설과 창작소설의 관계가 어땠으며, 조선에서 유통되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들은 없다. 현재 남아 있는 자료들의 탐구는 이러한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본고에서는 동양문고 소장 『북송연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책은 明代 소설 『北宋志傳』의 조선후기 국문 번역본이다. 『北宋志傳』은 명대 熊大木(1506-1578)에 의해 편찬되었는데 楊業과 그의 아들들을 비롯한 여러 역사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이다.¹⁾ 조선에서 『北宋志傳』에 대한 가장 빠른 언급은 17세기 기록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당시에 조선으로 유입되어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다른 중국 소설들과 함께 17세기 이후 기록과 목록에 꾸준히 나타나며, 조선 후기에 계속 유통된 것으로 확인된다.²⁾ 현존하는 국문 번역본으로는 장서각본과 동양문고본 두 종이 있다. 장서각본은 낙선재본 소설이며, 필사가가 없어서 언제, 어떻게 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동양문고본은 1902년에 서울 사직동에서 제작된 세책본이다.

국문 번역본 『북송연의』는 박재연에 의해 최초로 연구되었다. 박재연은 낙선재 소장 국문으로 번역된 중국소설들을 다루는 논고에서 장서각본 『북송연의』를 다른 영웅소설들과 함께 살펴보고, 이 자료가 원본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번역본임을 밝혔다.³⁾ 이후 유춘동은 동양문고 세책 고소설에 대한 연구에서 동양문고 소장 『북송연의』를 소개하고, 장서각본에 비해 축약된 본임을 밝혔다.⁴⁾ 하지만

1) 이 작품은 『楊家將傳』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국내 도서관에서 소장되어 있는 판본들 가운데도 『양가장전』이라는 제목을 가진 이본들이 있다.

2)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박재연, “조선시대 중국 통속소설 번역본의 연구 - 낙선재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1993), 159-169. ; 박재연 교주, 『북송연의』 (서울: 학교방, 1996), 1-5.

동양문고 『북송연의』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독립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자료는 중국 원본에 비해 여러 변화를 보인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 소설과 독서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이 글에서는 우선 『北宋志傳』 관련 기록 및 목록을 소개하고, 이 작품의 조선 후기 유입과 유통을 살펴볼 것이다. 그 후에는 자료의 구성적 변화들을 보여준 후, 내용의 변화를 생략, 축약 및 재창작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北宋志傳』의 국내유입관련 기록

조선은 동아시아권의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공동문자인 漢字를 공유하면서 중국의 여러 문화를 유입시켜 왔다. 소설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명청대에 소설 장르가 유행하자 이 서적들 역시 조선에 전래되었다. 『北宋志傳』도 그러한 서적들 중 하나였다. 여기서는 여러 기록과 목록을 통해 이 작품의 국내유입과 유통을 살펴보고자 한다.

허균(許筠, 1569-1618)은 『西遊記跋』이라는 기록에서 여러 중국 소설들의 특징을 언급하면서 “북송지전은 소략하다.”라고 한 바 있다.⁵⁾ 이후에 홍만중(洪萬鍾, 1643-1725)은 『莊嶽委談』에서 “오래된 소설 가운데 빼어난 작품이라 일컬어질 만한 것으로 西遊記, 水滸傳 외에도 列國, 東北漢, 五代, 唐, 南北宋에 모두 演義가 있어 세상에 두루 유행되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⁶⁾ 이 두 기록에서 언급되는 北宋, 南北宋은 『北宋志傳』과 『南北宋志傳』을 말하는 것이다.⁷⁾

4) 유춘동, “일본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의 성격과 의미,” 『민족문화연구』 64(2014), 301-303.

5) “北宋略.”(민관동, 김명신, 『중국고전소설비평자료총고』(서울: 학고방, 2003), 200-202. 이에 대한 원기록은 『惺所覆瓿藁 卷13, 許筠全書』(서울: 아세아문화사, 1980), 141).

6) “古說之表 表可稱者 西遊記 水滸傳外 如列國 東西漢 齊魏 五代唐 南北宋 各有演義 皆行於世.”(민광동, 김명신(2003), 206-208. 이에 대한 원기록은 『洪萬鍾 全集 上』(서울: 태학사, 1997), 89-91).

『北宋志傳』은 1762년에 完山 李氏에 의해 제작된 『中國小說繪模本』이라는 화첩의 서문에서 여러 소설들과 함께 ‘北宋演義’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다.⁸⁾ 처음에 完山 이씨는 영조의 후궁 영빈 이씨로 추정되다가 이후 정벌설에 의해 사도세자로 추정되었다.⁹⁾ 이 화첩은 중국소설의 삽화를 모아놓은 책이며, 여기서 말하는 ‘北宋演義’는 중국 소설을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1744년에 화가 윤덕희(尹德熙, 1685-1776)에 의해 만들어진 『字學歲月』이라는 책에 있는 소설목록에도 ‘北宋演義’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다.¹⁰⁾

온양 정씨(溫陽 鄭氏, 1725-1799)에 의해 필사된 것으로 밝혀진 서울대학교 소장 『옥원재합기연』 권14와 권15의 표지에는 창작소설과 번역소설의 제목들이 기재되어 있다.¹¹⁾ 이들 중에 ‘북송연의’라는 제목이 확인된다. 『옥원재합기연』은 한글 필사본 작품이며, 표지의 목록도 국문으로 작성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북송연의’는 중국 작품의 원본보다는 국문으로 번역되어 유통되고 있는 『북송연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920년에 작성된 『演慶堂漢文目錄 附諺文目錄』에서도 ‘북송연의’라는 제목이 기록되어 있다. 이 기록은 현재 장서각본 소장 국문본 5권 5책 『북송연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¹²⁾

이상의 기록과 목록을 바탕으로 중국 소설 『北宋志傳』이 이미 17세기 초에 당대 지식인들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18세기에는 유행작품들과 함께 여러 문헌에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중국 소설이 아닌,

7) 『北宋志傳』과 『南宋志傳』은 함께 엮여져서 출판되기도 했다. 『南宋志傳』도 조선후기에 『남송연의』라는 제목으로 국문으로 번역되었다. 그 번역본에 대해 다음 논문 참조. 김영,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소장 한글 필사본 『남송연의』에 대하여,” 『중국소설논총』 25(2007), 155-183.

8) 박재연 편, 『중국소설회모본』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3), 16.

9) 完山 이씨는 영조의 후궁 영빈 이씨로 추정되기도 했다(박재연 편(1993), 1. 참조). 그러나 이후 정벌설은 저자를 사도세자로 추정했다(정병설, “사도세자가 명해서 만든 화첩: 『중국소설회모본(中國小說繪模本)』,” 『문헌과 해석』 47(문헌과 해석사, 2009), 126-135).

10) 박재연, “윤덕희의 소설경람자,” 『문헌과 해석』 19(2002), 207-216.

11) 심경호,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 온양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과 낙선재본 <옥원중회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3(1990), 187.

12) 『演慶堂漢文目錄 附諺文目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청구기호K2-4968), 1920.

국문 번역본 역시 다른 창작 및 번역소설들과 함께 유통되면서 목록에 수록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의 기록과 목록들은 『北宋志傳』과 그 국문 번역본이 조선후기에 계속 읽히고 유통되었음을 보여준다.

『北宋志傳』은 현재 국내 여러 도서관에서 『南北宋志傳』, 『北宋志傳』, 『楊家將傳』 등의 제목으로 총 11종의 소장본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 작품의 조선시대 국문 번역본으로는 현재 장서각 소장본과 동양문고 소장본 2종이 존재하고 있다.

3. 동양문고본 『북송연의』의 구성적 변화

동양문고본 『북송연의』는 13권 1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책의 크기는 동일하고, 23×18cm이다. 각 책은 4침안으로 제책되어 있고 표지는 황색이다. 표제는 ‘北宋演義’이며, 표제 밑에는 한자로 된 冊次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다. 각 책의 본문 시작 부분에는 ‘북송연의’라는 권수제가 있다. 각 책은 30-3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문은 11행 15-16자로 되어 있다. 본문의 상단에는 장수가 표시되어 있다. 각 책의 끝에는 필사기가 기록되어 있다. 권1부터 권9까지는 ‘세조 임인 칠월일서’(권 8은 ‘세조임인 칠월일필서’, 권9는 ‘세조임인 칠월회일서’), 권10부터는 ‘세조임인 팔월초일 〃 서’(권12는 ‘세조 임인팔월일서’, 권13은 ‘세조 임인팔월일 사직동필서’)라 기록되어 있다. 필사기를 통해 동양문고 소장 『북송연의』는 서울 사직동에서 임인년(1902년) 칠월에서 팔월 사이에 필사된 책임을 알 수 있다.

원래 명청 시기에 소설 작품들은 주로 목판본으로 인쇄되어 유통되었다. 현재 국내 소장 『北宋志傳』 중국본 중에도 근대 석인본을 제외하면 모두 목판본이다. 이처럼 목판본 중국본이 조선후기에 국문으로 번역되면서 당대 소설의 가장 일반적인 필사본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北宋志傳』은 총 50회로 구성된 장회소설이다. 장회 소설에서는 회별 분류가 체계의 핵심을 이룬다. 각 회는 해당 회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몇 글자로 된

제목이 있다. 중국 소설들은 조선후기에 국문으로 번역되었을 때 회 제목이 번역되지 않고 보통 음역만 되었다. 『北宋志傳』도 마찬가지로 원본의 회 제목들은 국문으로 음역만 되었다.¹³⁾

다음 표에서는 중국 원본과 동양문고본의 목차를 대비하여 동양문고본 『북송연의』가 각 회의 제목, 위치, 유무 등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제시했다.

<표 1> 『北宋志傳』 원본과 동양문고본 『북송연의』의 목차 비교¹⁴⁾

회수	원본 『北宋志傳』	동양문고본 『북송연의』	회수	원본 『北宋志傳』	동양문고본 『북송연의』
1	北漢主屏逐忠臣 呼延贊激烈報仇	회 제목 없음 (권1, 1a) ¹⁵⁾	26	九妹女誤陷幽州 楊延德大破番兵	회 제목 없음 (권7, 22a)
2	李建忠力救義士 呼延贊夢神教武	니건충여구의스 호연찬모친교유 ¹⁶⁾ (권1, 11a)	27	樞密計傾無佞府 金吾拆毀天波樓	회 제목 없음 (권7, 30b)
3	金頭娘征場斗藝 高懷德大戰潞州	금투랑전장투 회덕디전노주 ¹⁷⁾ (권1, 21a)	28	焦贊怒殺謝金吾 八王智救楊郡馬	회 제목 없음 (권7, 34b)
4	講和議楊業回兵 迎鑾駕豪傑施能	회 제목 없음 (권1, 24b)	29	宋君臣魏州看景 王全節銅台交兵	송군신위주강성 ¹⁸⁾ 왕전절동디교병 (권8, 5a)
5	宋太祖遺囑後事 潘仁美計逐英雄	송티조유촉학스 반인미계촉영웅 (권2, 1a)	30	八王齋詔求六使 焦贊大鬧陳家莊	팔왕셔 ¹⁹⁾ 조구눅스 초찬디료진가장 (권8, 12b)

13) 국문 번역본 장서각 소장 『북송연의』에서 회의 제목은 모두 음역되어 기록되어 있다.

14) 필자는 국내 도서관에서 소장된 『북송연의』 여러 종을 확인했다. 이 책들은 서로 간에 구성과 내용에서는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국문번역본의 대조를 위한 기준으로 다음의 책을 이용했다. 侯忠義, 『明代小說輯刊 第2輯 1: 南北兩宋志』(巴蜀書社, 1993).

15) 괄호 안에는 각 회가 시작되는 페이지 번호를 표시했다.

16) ‘몽신교무’를 ‘모친교유’로 기록했다.

17) ‘예’자와 ‘고’자가 생략되었다.

18) ‘성’은 ‘경’의 오기

19) ‘셔’는 ‘제’의 오기.

회수	원본 『北宋志傳』	동양문고본 『북송연의』	회수	원본 『北宋志傳』	동양문고본 『북송연의』
6	潘仁美奉詔宣召 呼延贊單騎救駕	회 제목 없음 (권2, 8b)	31	呼延贊途中遇救 楊郡馬大破遼兵	회 제목 없음 (권8, 22a)
7	北漢主議守河東 呼延贊力擒敵將	북한궐의슈하동 호연찬역금역 ²⁰⁾ 장 (권2, 18a) ²¹⁾	32	蕭太后出榜募兵 王全節兵征大遼	소티휘축 ²²⁾ 방모병 왕전결병정디노 (권9, 1a)
8	建忠議取接天關 大遼出兵救晉陽	건충의취접턴관 디포출병구진양 (권2, 22b)	33	呂軍師布南天陣 楊六使明下三關	회 제목 없음 (권9, 9a)
9	郭進大破耶律沙 劉鈞救書召楊業	회 제목 없음 (권3, 1a)	34	宗保遇神授兵法 眞宗出榜募藝人	농 ²³⁾ 종보우신수병법 진종출방모의인 (권9, 16a)
10	八王進獻反間計 光美奉使說楊業	회 제목 없음 (권3, 12b)	35	孟良盜回白驥馬 宗保佳遇穆桂英	밍낭도주빅기마 종보가우목계평 (권9, 27b)
11	小聖感夢取太原 太宗下議征大遼	회 제목 없음 ²⁴⁾ (권3, 27b)	36	宗保部衆看天陣 眞宗築壇封將帥	종보부동 ²⁵⁾ 간천진 진종축 ²⁶⁾ 단봉장수 (권10, 7b)
12	高懷德幽州大戰 宋太宗班師還汴	고희덕디전유주 ²⁷⁾ 송티종반귀환번 (권4, 6a)	37	黃瓊女反投宋營 穆桂英破陣救姑	황경네반투송영 목계형파진구고 (권10, 15b) ²⁸⁾
13	李漢瓊智勝番將 楊令公大破遼兵	회 제목 없음 (권4, 13a - 15b)	38	宗保議功迷魂陣 五郎降伏蕭天佐	종보의공미혼진 오랑항복쇼천좌 (권10, 25a)
14	犒將士趙普辭官 宴群臣宋琪賦詩	14회 전체 삭제	39	宋眞宗下詔班師 王樞密進用反間	송진종하조반스 왕추밀진용반간 (권11, 4a)

20) ‘역’은 ‘적’의 오기.

21) 7회는 실제로 권2, 15a에서 시작된다.

22) ‘축’은 ‘출’의 오기.

23) 원본에 없는 글자를 추가했다.

24) 10회의 끝에는 찬양하는 글이 있다.

25) ‘동’은 ‘중’의 오기.

26) ‘축’은 ‘축’의 오기.

27) ‘대전유주’는 본래 ‘유주대전’이나, 글자들의 순서가 바뀌었다.

28) 37회는 실제로 권10, 16a에서 시작된다.

회수	원본 『北宋志傳』	동양문고본 『북송연의』	회수	원본 『北宋志傳』	동양문고본 『북송연의』
15	曹彬部兵征大遼 懷德戰死歧溝關	회 제목 없음 (권4, 16a)	40	八殿下三關借兵 衆英雄九龍鬥武	팔전히삼관참 ²⁹⁾ 병 중영웅구룡투무 (권11, 12b)
16	太宗駕幸五台山 淵平戰死幽州城	회 제목 없음 (권4, 24a)	41	楊延朗暗助糧草 八娘子大戰番兵	회 제목 없음 (권11, 20a)
17	宋太宗議征北番 柴太郡奏保楊業	회 제목 없음 (권4, 31b)	42	楊郡馬議取北境 重陽女大鬧幽州	양군마의취북경 중양녀디료유주 (권11, 28b)
18	呼延贊大戰遼兵 李陵碑楊業死節	호연찬디전노병 니릉비얏업스절 (권5, 7b)	43	平大遼南將班師 頒官誥大封功臣	평디노남장반스 반관고디봉공신 (권12, 6b)
19	瓜州營七郎遭射 胡原谷六使遇救	다 ³⁰⁾ 유영칠낭조스 호원곡육낭 ³¹⁾ 사구 (권5, 17a)	44	六使議取令公骸 孟良誤殺焦光賊	육시의취영공히 밍낭오살조간장 (권12, 14b)
20	六使沛京告御狀 王欽定計圖八王	육쇠변경고언장 왕흠정계도팔왕 (권5, 27b)	45	禁宮中八王祈斗 無佞府郡馬壽終	금궁중위팔왕기도 무평 ³²⁾ 부양군마종명 (권12, 21b)
21	宋名臣辭官解印 蕭太后議圖中原	송명선관디인 ³³⁾ 조티우도중원의 (권6, 1a) ³⁴⁾	46	達達國議舉伐宋 楊宗保兵征西夏	달 〃 국디병벌송 양종보병정서하 ³⁵⁾ (권12, 28b)
22	楊家將晉陽鬥武 楊郡馬領鎮三關	양가장신낭투무 양군마녕진삼관 (권6, 12b) ³⁶⁾	47	東天神大戰宋將 百花女鍾打張達	슈천신디전송병 빅성장진참장갈 ³⁷⁾ (권13, 7a)

29) ‘참’은 ‘차’의 오기.

30) ‘다’는 ‘과’의 오기.

31) ‘육낭사구’는 본래 ‘육사우구’이다.

32) 원제목은 ‘금궁중위팔왕기도 무령부군마명종’인데, ‘도’는 ‘두’의 오기, ‘양’은 원문에는 없는 추가된 글자이다.

33) 원제목은 ‘송명신스관히인 쇼태후의도중원’인데, 글자들의 오기와 글자 자리가 바뀔을 볼 수 있다.

34) 21회는 실제로는 권6, 5a에서 시작된다. ‘의도중원’을 ‘도중원의’로 기록했다.

35) 원제목은 ‘달달국의거벌송 양종보병정서하’, 오기가 있다.

36) 22회는 실제로는 권6, 14a에서 시작된다.

37) ‘슈’는 ‘속’의 오기, ‘갈’은 ‘달’의 오기.

회수	원본 『北宋志傳』	동양문고본 『북송연의』	회수	원본 『北宋志傳』	동양문고본 『북송연의』
23	樵夫詭計捉孟良 六使單騎收焦贊	초부계계착밍냥 늑시단극금초창 ³⁸⁾ (권6, 24b)	48	楊宗保困陷金山 周夫人力主救兵	회 제목 없음 (권13, 15a)
24	孟良智盜驢驢馬 岳勝大戰蕭天佑	밍냥지도승 ³⁹⁾ 상마 악승디전소현후 (권7, 6b)	49	杜娘子大破妖黨 馬賽英火燒番營	두녀장디과번장 마화영소화번영 ⁴⁰⁾ (권13, 22a)
25	五台山孟良借兵 三關寨五郎觀象	회 제목 없음 (권7, 11b)	50	楊宗保平定西夏 十二婦得勝回朝	양종보평정서하 십스뷔득승회도 (권13, 29a)

이상에서 표를 통해 동양문고본 『북송연의』의 체계적 변화를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동양문고본은 거의 삼분의 일 분량의 회의 제목(회1, 4, 6, 9, 10, 13, 15, 16, 17, 25, 26, 27, 28, 31, 33, 41, 48)을 제거한 것이다. 그럼으로 원래 분계되어 있는 회들이 합쳐졌다. 둘째, 회 제목을 원래의 자리에서 옮겼다. 회 7, 21, 22, 37은 회 제목을 유지하되, 해당 회의 내용이 시작되기 이전 또는 이미 시작된 이후에 회의 제목을 기록했다. 셋째, 회 제목을 다르게 기록했다. 이를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1) 글자를 오기하여 회의 제목을 다르게 기록한 경우가 가장 많다. 예를 들어, 32회의 본래 “蕭太后出榜募兵王全節兵征大遼”라는 제목을 동양문고본에서는 ‘소티휘축방모병 왕전절병정디뇨’라고 기록했는데, 여기서 ‘出’자를 ‘축’자로 오기한 것을 볼 수 있다. (2) 원래의 제목에는 없는 글자를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34회의 원래 제목은 ‘宗保遇神授兵法 眞宗出榜募醫人’인데, 동양문고본에서는 이 회의 제목이 ‘농종보우신수병법 진종출방모의인’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맨 앞의 ‘농’자는 추가되었음을 볼 수 있다. (3) 회의 제목에서 글자의 자리를 서로 바꾸었다. 21회의 본래 제목은 ‘宋名臣辭官解印 蕭太后議圖中原’인데, 동양문고본에서는 이 회의 제목

38) ‘기수초찬’을 ‘극금초창’으로 기록했다.

39) ‘승’은 ‘숙’의 오기. ‘후’는 ‘우’의 오기.

40) ‘냥자’를 ‘녀장’으로 기록하고, ‘요당’을 ‘번장’으로 기록했다. 글자의 순서를 변경하여 ‘화소’를 ‘소화’로 기록했다.

이 ‘송병선관디인 조티우로중원의’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앞에서 살펴본 오기와 글자 추가하는 경우와 함께 글자배열을 하여 본래 ‘의도중원’으로 기록해야 하는 것을 ‘도중원의’로 바뀌어 쓴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동양문고본에서는 회의 제목 및 회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보인다. 예를 들어, 동양문고본 3회의 제목은 ‘금투랑전장투 회덕디전노쥬’인데, 마씨 금두랑이 투구에 화살을 맞는 이야기로 원래 제목 ‘金頭娘征場斗藝 高懷德大戰潞州’를 유지한 것이다. 그러나 동양문고본은 내용에서도 변화를 하면서 회 제목에서도 보이듯이 이 회의 가장 핵심적 내용으로 부각시킨 호연찬과 마씨 금두랑의 시합 내용을 생략하여 그들이 혼인하는 과정을 재창작한다.⁴¹⁾ 따라서 동양문고본에서는 금두랑이 시합하는 내용이 없고, 다만 회의 제목이 원래의 회 제목에 따라 되어 있고, 수정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동양문고본 『북송연의』에서는 회들의 제목을 제거하고, 원 위치와 다른 위치에 작성하거나 오기하는 등과 같은 체계적 변화들이 번역과정보다 국문 번역본의 유통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동양문고본은 이미 유통하고 있는 번역본을 전사(轉寫)한 (또는 편집 및 전사한) 책으로 판단된다.⁴²⁾

그렇다면, 동양문고본 『북송연의』는 바로 당대 편집자 및 필사자들이 번역소설의 체계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그들은 번역본 작품에서 회별 분류가 만드는 분계, 회제목이 전달하는 핵심적 내용의 정리 및 암시라는 기능을 약화시키고, 이 기능에 의미를 적게 두었음을 보여준다. 그 대신에 동양문고본 『북송연의』는 조선후기 필사본 고소설의 권별 분류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 동양문고본의 각 권 시작에는 권수제와 권차를 적고, 각 권말에는 조선후기 창작 및 번역 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하회분석하라”, “하회 었디 되고 츠하를 보라”, “츠정호회하라”, “츠청호회를 분히하라”라는 구절 및 필사기를 기록했다. 이를 통해서 본래 목판본 회장소설인 『北宋志傳』이 조선후기에 번역되고 유통되면서 현지의 필사본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을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내용적 변화를 살펴보는 장에서 다루겠다.

42) 원본의 체계 및 내용을 충실히 따른 장식각본 『북송연의』가 있다는 것은 동양문고본의 구성적·내용적 변화들이 번역본의 유통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한다.

4. 동양문고본 『복송연의』의 내용적 변화

4.1 내용의 생략

동양문고본 『복송연의』는 원래의 내용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생략 중에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다.

호연찬은 마화와 싸우기 전날 밤에 그를 이길 방법을 생각하다가 잠든다. 꿈에서 한 장수가 나타나 그를 불러 무예를 시험한 후, 시험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호연찬이 잠에서 깨자 꿈에서 장수에게 받은 갑옷이 실재로 그의 몸에 걸쳐 있었다. 호연찬은 근처에 묘당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그 곳으로 간다. 그는 묘당에 있는 화상을 보고 꿈에서 만난 장수라는 것을 알게 된다. 호연찬은 그림 속의 장수에게 마화를 이기게 되면 새로운 묘당을 세워주겠다고 약속한다. 그리고 마화와 싸우러 간다.

呼延贊回到帳中 思量捉馬坤之計 俄而睡去 忽見個火球滾入帳中 贊夢中趕將出去 至一所在 盡是金窗朱戶 宮宇巍然 贊直入內 卻不見那火球 秀邊轉過一人曰 主人候將軍多時矣 贊曰 汝主人是誰 其人曰 請入內便見 逕引贊入殿中 見一員猛將 端然而坐 覩定呼延贊曰 你道天下只你一個會武藝麼 贊答曰 小人一勇之夫 何足掛齒 那員將道 且去教場中 吾有事講論 贊即隨到教場亭上坐下 那將令左右以鞍馬軍器付與贊曰 你有甚武藝 試演一遭 與吾觀之 贊領諾上馬 將平生所學顯出 那將笑曰 此不足爲奇 喚左右牽過自己馬來 謂贊曰 吾與君較一較勝負 贊自思思 適間留一路槍法未使 且與他比較刺之 乃上馬與那將場中比較 二人鬥上數合 贊揮起鋼槍 被那將轉 過驛驢 挾下馬來 連喝曰 吾弟牢記此一法 贊愕然覺來 卻是夢中 視身上衣甲尚在 贊思奇異 便喚小卒入 問曰 此處莫非有神廟乎 小卒曰 離此一望之地 有一座古廟 年深荒蕪 無人祭賽 贊於次日帶小卒來看其廟 見牌額寫道 唐尉遲恭之詞 步入殿上 見神像與夜來所夢無異 贊曰 怪哉 此乃神力相助也 卽倒身四拜 當神祝曰 若使呼延贊久後發跡 必當重整詞字 以報神功也 拜罷 與小卒回見李建忠 建忠曰 賢弟那裡得此衣甲 贊道知夜來所夢之事 建忠喜曰 此乃神靈相助 吾弟當有大富貴之分 正講話間 忽報馬華在外搦戰 (2회, 334-335쪽)⁴³⁾

43) 侯忠義, 『明代小說輯刊 第2輯 1: 南北兩宋志』(巴蜀書社, 1993).

동양문고본에서는 호연찬의 꿈 내용과 묘당에 가서 은혜를 갚기로 약속하는 내용 등이 모두 생략되었다. 호연찬이 마화를 이기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하여 바로 산채에서 내려가서 마화 싸우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찬이 장중의 잇서 마곤 잡을 모칙을 싱각고 인군호여 뵈히 나라 마화로 더부러 더진홀시 (동양문고본, 권1, 18b)⁴⁴⁾

이 부분에서 생략된 내용은 호연찬이 마화와 싸워 이기는 본래 주제에서 벗어나는 비현실적인 꿈, 묘당을 방문하여 화상과 약속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략을 통해 동양문고본은 서술을 본체에 집중하게 한다. 작자는 여러 내용을 생략하면서 그 앞뒤의 내용을 매끄럽게 연결하고 있다. 이것은 편집자가 내용의 생략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동양문고본 14회 ‘犒將士趙普辭官 宴群臣宋琪賦詩’는 전문이 생략되었다.⁴⁵⁾ 그 이전 13회 ‘李漢瓊智勝番將 楊令公大破遼兵’에는 양업이 요군을 크게 이기고, 요나라 장군 야를사진이 복수하기 위해 소후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것으로 끝난다. 14회의 앞부분은 양업이 요나라 군대가 힘을 모아서 다시 공격할 것을 예측하고, 전투준비를 하여 군량을 보내달라는 상소를 올리는데, 황제는 오히려 그에게 돌아오라는 명령을 내리고 양업이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이끌고 송으로 돌아가는 내용이다. 그 이후에 조보라는 신하가 낙향하면서 황제가 그에게 시를 써주고 문무신하들과 잔치를 열어 시를 짓고 즐기고,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초왕이 분노하여 집을 불태우며, 황제가 그를 폐위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15회부터는 다시 요나라가 군대를 모아 침입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동양문고본은 14회의 전문을 생략하고, 전후 내용(13회의 끝부분과 15회의 시작부분)이 이어질 수 있게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양업이 두 아달을 익이를 보고 군을 모라 엄살흐니 야를시 저당치 못흐여 다라 나거날 양업이 필마로 좌우 충돌흐여 무인지경 갖치 짓치니 요병이 디뵈흐여

44) 이후 국문 번역본 예문들은 모두 동양문고본 『북송연의』이다.

45) 분량이 많은 관계로 14회의 전문을 수록하지 않는다.

자상천답하미 죽음이 산갓고 피 흘너 니이 되엇더라 양업이 〃 피 익이물 엇고 도라오니 상이 더희호스 설연간더호시고 출전 장스롤 후상호신더 환성이 원자의 즈 〃 하더라 각설 야율휴기 송스의 물너간 후로 슈성의 욱을 잡고져 호여 이의 쇼후기 주왈 (권4, 15b-16a)

동양문고본은 양업이 대승을 거두고 경사로 돌아오고 황제가 기뻐하여 장군들을 후상한다는 장면이 서술되고, 바로 요나라가 군대를 모으는 장면으로 이어진다. 양업이 요군을 이긴 후 경사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유지되어 서술되었다. 동양문고본은 황제가 잔치를 열어 신화들과 시를 짓는 장면, 그 시들의 내용, 초왕의 폐위라는 주변 내용들이 모두 생략되었다. 이들은 전후 내용에 있는 싸움터의 주제와 다른 장면들이기에 삭제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함으로서 동양문고본은 해당 부분의 주요 주제에 집중되는 서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육사가 이별한 부하들을 생각하다가 가사를 읊는 장면을 살펴보겠다.

追憶部下 口占長詞一闋云 慘結秋陰西風送 絲絲露濕凝望眼 征鴻幾字暮 投沙磧 欲往鄉關何處是 水雲浩蕩連南北 但修眉一抹有無中山色 天涯路 江上客 情已斷 頭應白 空搔首興歎 暮年離隔 欲持忘憂除是酒 奈酒行欲盡愁無極 便挽江水入樽罍 澆胸臆 六使吟罷 人西窗下 正待解衣就寢 (44회, 558-559쪽)

동양문고본은 이 장면에서 가사의 내용을 생략했다.

부하 제장의 니별을 싱각호고 기리 탄식호며 한 가스를 지어 읊꾼 후의 방중의 드러가 제롤 의지호여 잠간 죠호더니 (동, 권12, 16ab)

동양문고본은 육사가 이별한 부하들을 생각한다는 주요 내용을 유지했지만 가사 내용을 생략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동양문고본은 주로 해당 부분의 주요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판단한 주변 여담 및 세세한 서술, 꿈 등의 초월적 요소, 대화 및 가사, 시, 편지 등의 내용을 생략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내용의 축약

동양문고본은 내용을 생략만 한 것이 아니라 축약의 방식도 활발히 사용했다. 이 방법을 통해 작품의 중요한 사건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축약해서 서술했다. 사례들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겠다.

북한주 유균은 양업을 부르는 조서를 보낸다. 양업은 그것을 받고 아들 및 부하들과 이 조서의 내용에 대해 의논한다. 양연사는 유균의 요청을 따르지 말자고 하고, 왕귀는 따라야 한다는 등 각자의 의견을 말한다. 결국 양업은 양연편으로 하여금 응주를 지키게 하고 왕귀와 함께 진양에 와서 유균을 만난다. 유균은 양업을 예로 맞이하고 술을 권하며 둘은 대화를 나눈다.

楊業得書 與諸將議曰 往年周主下河東 吾父子大勝其軍 足以振威矣 今宋 師又至 漢主復下詔來召 還當救之 道未了 七郎曰 中原軍馬甚盛 大人此一 回且莫發兵 待宋師將困河東 救之未遲 王貴曰 小將軍道差矣 君命召 不俟 駕而行 嘗言 救兵如救火 若待宋師臨城 則成涓涓之勢 徒勞無益也 正須亟 出兵相援 庶表忠國之志 楊業然其言 乃令長子淵平守應州 自與王貴部兵 即日赴晉陽 來見劉鈞 山呼畢 劉鈞以賓禮相待 賜賚甚厚 業拜謝而退 次日 劉鈞設宴於中殿 款待楊業 楊業奏曰 陛下召臣退敵 未能寬慰主憂 何敢受宴 鈞曰 卿之威望 馬到成功 何患敵人不滅那 但飲數杯 明日出兵未遲 業拜受命 是日劉鈞親賜業金 君臣盡歡而散 次日 業入見劉鈞謝宴 因請旨出兵 鈞曰 今日卿可部兵前行 若退得宋師 寡人當以重爵處卿 業即日辭朝 率精兵前到澤州下寨 (3회, 341쪽)

동양문고본에서는 이상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양업이 도서를 보고 메즈로 의논하디 왕연의 슈취 하동을 칠 제 우리 부지 크게 이기여 위업이 진동하엿더니 송병이 또 이르니 우리 가 구허리라 호고 군스 이만을 점고하여 북한지계의 니르니 한쥬 성의 나와 마저 드리가 설연하여 양업을 위로하더니 한쥬 친히 잔을 잡아 권하니 양업이 스투레고 이튼 날 정병을 거나러 턱쥬의 하치하니라 (권1, 24a-b)

동양문고본은 양업이 유균의 조서를 받고 그를 도와주러 가는 주요 내용을 유지

하되, 양업과 아들 간의 대화, 유균과 양업 간의 대화 및 세부적인 묘사 등을 줄여 이 장면을 축약해서 서술했다.

호연찬은 송태조의 부름을 받고 송나라로 귀순한다. 호연찬의 원수 반인미는 그를 돌려보내기 위해 일부러 그에게 누추한 집과 노약한 군사들을 준다. 반인미의 심복인 유왕은 그에게 호연찬이 반인미에게 신임인사를 할 때 모욕을 입히는 계략을 가르쳐준다. 반인미는 그 계략에 따라 호연찬이 그에게 인사를 하러 왔을 때 귀순한 도적에게는 매 일백 장을 때리는 선제(先帝)의 법이 있다고 속여 심복들로 하여금 호연찬을 매질하게 한다.

卻說潘仁美遣人密探贊之動靜 回報 呼延贊自到府中 不以荒殘爲意 惟日夕整飭戎伍 部下號令嚴明 不敢私自入城擾亂百姓 仁美聞報 自忖 此人久後必得大位 欲思逐去之計 乃與心腹劉旺商議 旺曰 此事不難 彼今新到 未得重職 三日後當來參見大人 待其至 生一支節 苦虐之 彼被羞辱 必將逃去矣 安用逐爲 仁美大喜曰 此計甚妙 卽吩咐左右 嚴設刑具以待 第四日 人報呼延贊入府參謁 仁美令召入 呼延贊逕趨階前拜曰 小將蒙樞使提攜 得入於朝 誠願盡忠於闕下 以報先帝知遇之大恩也 仁美半晌不答 已而乃曰 汝曉得先王留下法例麼 贊曰 小將初到 不省其由 仁美曰 先皇誓書 但遇招伏強人下山 皆要決一百殺威棒 以禁其後 汝今亦當如是 贊聽罷 驚然莫應 仁美喝令手下 依法施行 左右得令 將呼延贊推倒於階下 重責一百 (5회, 348쪽)

동양문고본에서는 이 부분이 다음과 같이 서술되었다.

반인미 날마다 사람을 보니여 호연찬의 동정을 보더니 일 ”은 한 계교를 생각하여 황부의 니르러 호연찬을 보고 일오디 선대 정헌신 법의 산상도적이 처음으로 귀순하면 일빅장을 치나니 장군이 쏘한 이 법을 형허리로다 호연찬이 츀언을 듯고 침음하여 대답이 업거날 박인미 좌우를 호령하여 연장을 잡아나리과 일빅장을 치니 (권2, 5b)

동양문고본에서는 반인미가 호연찬에게 모욕을 주는 계략을 스스로 생각하고는 직접 호연찬의 집으로 와서 그를 매질하게 한다. 즉 반인미가 호연찬을 모욕하는 주요 사건이 유지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가 축약해서 서술되었다.

위 사건에 이어 벌어지는 다음 장면을 살펴보겠다. 호연찬은 반인미에게 백대

의 곤장을 맞고 집에 들어가 아내 마씨 앞에서 기절한다. 이 때 나이 많은 군사가 나타나서 호연찬 상처에 독이 퍼져 있다고 설명하고 환약을 써서 그를 치료해 준다. 호연찬은 정신을 차린 후 그 군사에게 이 환약을 어디서 구했는지 물어보고 그의 은혜를 금으로 갚고자 한다. 군사는 그것을 받지 않으며 호연찬에게 반인미의 계략을 설명해주고 이곳을 떠날 것을 권한다. 호연찬은 이 상황에서는 태조에게 충성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며 바로 태행산으로 돌아간다.

呼延贊回至府中 馬氏接著 見其容顏改色 步履差池池 驚問何故 贊將被打 殺威棒之事 說了一遍 馬氏曰 旣先帝有此法例 亦當順受 將軍只得忍耐 言罷 暖過醇酒 遞與贊飲 贊在饑渴之際 接來便飲 酒杯未放 忽然大叫一聲 僕地悶絕 馬氏大驚 倉皇失措 百計扶摩 扶救不醒 遂放聲號哭曰 吾夫婦本欲盡忠於朝廷 誰想自送其命 忽旁邊轉過一者軍曰 夫人不要啼哭 小軍還能救之 馬氏泣曰 汝若救得醒 勝如重生父母 老軍曰 此是將軍被杖之時 必杖上先淬毒藥 浸入肌肉 遇熱酒即發 故悶絕去矣 待將靈藥解之 立地可醒 馬氏曰 旣有此藥 卽來施治 報恩有日 老軍取過丸藥 調而灌之 呼延贊口通藥氣 漸漸甦醒 衆軍皆喜 贊問老軍 藥丸何此之妙 老軍曰 小軍曾遭仇人毒手 受杖而死 得遇方外道人 救醒 因而傳得此藥 贊以白金重酬 老軍不受 乃曰 將軍居止此處 分明是當 朝潘仁美奏陷 適被毒杖 亦必是此人之計 公若不亟去 性命終難保矣 贊聽罷 怒曰 權臣當國 吾等何以立身 卽下令所部 收拾行李 連夜與馬氏走歸太行山 侵早早已到寨外 (5회, 349쪽)

이 장면은 동양문고본에서 다음과 같이 축약되어 서술되었다.

찬이 홀연 한 소리를 지르고 것구러지거날 마시 급히 구하니 이윽고 찬이 정신을 차려 한 소리 한훤는 소리 슈지 〃 아니훤고 마시다려 왈 황상이 우리를 초안 하사 중히 쓰시고져 허거날 간신이 능권하여 성충을 가리오니 하시의 공을 일위 충성을 표하리오 우리 아즉 산치의 잇다가 성상이 하동 치실 썩을 더하여 잇실만 갓지 못훤다 훤고 이날 인마를 거나려 티향산의 일러 (권2, 6a-b)

이 부분도 호연찬이 반인미의 행동에 분노하여 태행산으로 돌아가는 주요 내용을 유지하고 있으나, 호연찬이 기절하는 이유와 그를 구하는 자세한 과정 및 군사의 등장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생략했다. 이와 같은 축약의 결과로 주요 사건이 집중적으로 서술되었고, 마씨와 호연찬은 여러 행동과 결심을 조력자인

군사의 도움 없이 직접 하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간신 왕흥과 사금오가 황제를 설득시켜 양업의 집 건물인 천과루를 없애는 과정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도 원본과 동양문고본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원본에서는 양업의 부인인 영파가 천과루를 없애는 소식을 듣고 육사의 부인 시씨와 더불어 팔왕에게 이 일을 말한다. 팔왕은 사금오에게 뇌물을 주라는 조언을 하고 영파가 사금오에게 금은을 보내 일을 늦추지만, 결국은 황제가 간신의 설득을 듣고 천과루는 허무는 명을 내린다.

令婆悶悶而出 私地 王欽又力奏其事 眞宗允旨下敕 就著謝金吾監衆拆毀之旨敕既下 王謝不勝之喜 消息傳入楊府中 令婆與郡夫人議曰 不想謝金吾劾奏朝廷 要拆 天波樓 王欽亦互同此主意 今聖上允其奏 此賊必來毀拆 若不能作主 深貽夫君 羞也 郡主曰 待見八殿下商議 再奏聖上 或能挽回天意 令婆曰 事不宜遲 太郡當即往 柴氏逕辭令婆 來八王府中 相見畢 柴氏曰 主上聽信謝金吾罔奏 要拆毀天 波樓 且此樓創始 乃先帝之命 望殿下念其父子忠勤於國 復奏止息其事 則楊家 必深報德矣 八王曰 聖旨既下 難以即奏 且此樓不便於天使 主上有意去之 如今之計 謝金吾好利人也 汝歸商議 多用金寶 買賄與他寬容數日 遇有機會 我當奏於主上 柴太郡領命辭歸 見令婆 道知買囑之事 令婆曰 若得此樓不拆 安惜金寶爲哉 只恐謝金吾不肯接受 大郡曰 可令心腹付之 無有不接 令婆然之 即整 備黃金四十兩 玉帶一圍 遣人往謝府送去 果然金吾見楊府禮物 便自心動 乃作做曰 彼恃朝廷只在他一家而已 今日亦識謝某乎 知心人劉憲進曰 既楊家服輸 小心於樞密 正做個人情 緩緩拆之 待朝廷意阻 若留得不動 則令婆正有 孝敬在後 豈不兩全其美 金吾曰 汝言有理 遂受下禮物 遣人於楊府回覆 令婆聞知 私喜曰 若金吾肯息此事 聖上必不深較 乃遣人於八王府中 緝探復奏消息 不想謝金吾所受賄賂 已漏於王欽知道 乃力奏眞宗 亟行是事 眞宗 得奏 復敕謝金吾作急回報 金吾領旨 不得已 督率人夫將天波樓上層拆去 尙留中層未拆 (27회, 466-467쪽)

동양문고본에서는 이 내용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영궐 민 〃 이 퇴여날 왕츨밀이 힘뻐 쥬히디 상이 윤허흐스 〃 금오로 하여금 역군을 거나려 천과루를 회파하라 하시니 금의 슈명하고 인부를 거나려 천과루 상층을 허러바리고 중층을 헐너히더라 (권7, 32a)

동양문고본에서 이 부분도 역시 악인들의 계약으로 천과루를 허물게 한다는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결과 이전에 나타나는 세세한 과정인 영과와 시씨의 논의, 팔왕과 대화, 팔왕의 조연대로 사금오에게 뇌물을 보내어 일을 늦추는 내용 등은 생략되어 서술이 축약되었다.

이상을 통해 동양문고본 『북송연의』는 작품 곳곳에서 내용을 축약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동양문고본은 작품의 서사적 전개를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을 유지하면서도 그 사건들 관련 세부적 과정을 줄여 서술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내용의 재창작

동양문고본 『북송연의』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내용적 변화는 원 텍스트에 없는 내용을 새롭게 창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에 없던 내용을 추가만 한 것이 아니라 원래에 있었던 내용을 제거한 후 새로운 내용을 창작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용의 재창작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로 호연찬과 금두랑 마씨가 혼인하게 되는 장면을 보겠다. 마곤은 마충에게 자신의 딸과 호연찬(마충의 입양 아들)을 결혼시키는 이야기를 한다. 마충이 그것을 사양하지 않자, 마곤은 바로 딸 금두랑을 데리고 오게 한다. 금두랑은 그때 웃으면서 이전에 호연찬과는 무예를 겨룬 적이 있지만 승부를 보지 못했고, 만일 오늘 호연찬이 시합을 하여 이긴다면 혼인하겠다고 한다. 그리하여 호연찬과 마씨 금두랑은 시합을 하는데, 호연찬이 화살로 금두랑의 투구를 맞추자, 마충이 같은 집안 사람을 서로 상하게 하지 말라고 외친다. 이것으로 결투가 끝나고, 승리를 얻은 호연찬은 마씨와 혼인한다.

坤曰 小女金頭娘 貌雖醜陋 頗有武藝 若不嫌棄 願與贊結百年之歡 忠拱手謝曰 尊兄若肯憐愛 厚德難忘 馬坤即令人道知金頭娘 金頭娘笑曰 嫁與亦無妨 只不知呼延贊武藝如何 前日交鋒 未分勝負 今再與比試 若能勝我 則許從之 小卒出 告之馬坤 馬坤曰 小女幼習未除 要與呼延將軍比試 亦不礙事 忠即令贊與馬氏相較 贊領諾 披掛上馬 出場中 馬氏亦貫帶而出 二人於教場中 再決勝負 馬忠 劉氏 馬坤等 立於寨門外觀望 見二人各舉軍器 鬥上二十余合 勝

負不分 馬氏自恩 贊之槍法極熟 且試他射箭如何 卽勒轉馬韁 望將台而走 贊思曰 此必欲以箭驚我 待趕去看他如何 亦驟馬緊追去 馬氏待其相近 彎弓架箭 一連放出三矢 盡被贊閃過 贊曰 偏我不會射箭 復回馬 引馬氏趕來 拈弓在手 扣鏃而射之 其矢正中馬氏頭盔 衆人喝彩 馬忠跑出陣來 叫曰 一家人休得相並 二人乃各下馬 進入寨中 坤笑曰 贊將軍武藝精乎 馬氏低頭不答 坤知其意 卽令焚香爲誓 將馬氏嫁與呼延贊 贊拜了父母 稱謝馬坤 是日 衆人盡歡而散 (3회, 337-338쪽)

동양문고본에서는 금두랑이 이전에 호연찬과 시합했다는 것, 이기면 혼인한다고 조건을 내세우는 것, 둘이 시합하는 내용이 모두 제거되었다. 그리고 호연찬과 마씨가 결혼하게 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새롭게 재창작되었다.

마곤이 마춤다려 왈 한 일이 잇시나 현데 즐겨 청종홀가 춤 왈 존형 소청을 소제 언감부종하리오 마곤 왈 나의 딸 금두라이 모슈불민흐나 무예 저오동헌지라 현데 만일 바라지 아닐진디 호연찬의 빅연가위를 미지미 엇더호뇨 마춤 형이 만일 이 뜻이 잇실진디 쇼데 엇지 스양하리오 마곤이 즉시 사람으로 금두랑을 다려오니 마춤이 소왈 장지라 질아여 가위 아즈의 비필일다 허다라 이 날 중인이 진환이좌호고 차일 (권1, 22ab)

동양문고본에서 마곤은 마춤이 뜻을 받아주자 딸 금두랑을 데려오게 한다. 마춤이 그녀를 보더니 자신의 아들 호연찬의 배필이라 하면서 좋아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의 인연을 기뻐하는 것으로 재창작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목계영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다. 목계영도 무예 재주가 뛰어난 여성이다. 나중에 육랑의 아들 양종보와 혼인하여 양가의 구성원이 된다. 동양문고본은 목계영이 처음에 등장하여 소개되는 부분 및 그녀가 맹랑을 만나는 장면을 제거하고 원본에 없는 내용을 새롭게 창작한 것을 볼 수 있다. 오랑은 맹랑에게 황룡목을 얻어달라고 요청한다. 그 나무는 목계영의 산체에 있고, 맹랑은 그 나무를 구하러 간다. 이때 목계영은 부하들과 사냥을 하다가 새 한 마리를 쏘아 맞추는데, 그 새는 맹랑 앞에 떨어진다. 맹랑은 그 새를 잡고는 찾으러 온 부하들에게 주지 않는다. 결국 화난 목계영은 맹랑과 시합을 하게 된다. 맹랑은 그녀와의 시합에서 불리해지자 달아난다. 하지만 목계영은 그를 쫓지 않고, 오히려 그가

빠져 나가는 유일한 길을 막아버리다. 이때 맹량은 그녀의 부하에게 금투구를 벗어주어 부하의 도움으로 겨우 탈출한다.

孟良卽辭五郎 逕望穆柯寨來 恰遇寨主 乃定天王穆羽之女 小名穆金花 別名穆桂英 生有勇力 箭藝極精 曾遇神授三口飛刀 百發百中 是日正與部下出獵 射中一鳥 落於孟良面前 良拾得藏之 行未數步 忽有五六嘍囉 趕來叫聲 好好將鳥還我 饒你一死 孟良聽得 停住脚步 嘍囉近前 一齊發作 被良打得四分五裂而走 良又行得一望之地 嘍囉報與穆桂英 部衆追來 良聞後面人馬之聲 知是賊兵趕來 取出利刀 挺身待之 一伏時 桂英大罵 誅不盡的狂奴 敢來此處相鬧耶 孟良更不答話 舞刀相戰 桂英舉槍迎之 二人在山脚下 連鬥四十余合 孟良力怯 退步便走 桂英不趕 與衆人把住路口 孟良進退無計 謂嘍囉曰 吾將射鳥還汝 開路放我過去 嘍囉曰 汝來錯路頭 誰不知要過穆柯寨者 要留下買路錢 汝著無時 一年也不得過去 孟良自思有緊急事 只得脫下金盔當買路錢 嘍囉報與桂英 桂英令放路與過 (35회, 512-513쪽)

동양문고본에서는 목계영을 소개하는 부분과 목계영이 사냥하다가 맹량과 시합을 하는 장면 등이 모두 생략되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새로운 내용이 창작된 것을 볼 수 있다.

밍냥 왈 쇼장이 가서 구혀여 오리이다 호고 오랑을 하직호고 목각치로 향혀여 가더니 정히 목각치의 다 〃라 올라가고져 호나 산세 험호고 전후의 직훤 사람이 만하 능히 오로지 못호고 쥬져호더니 문득 한 썸 쇼로리 니라다 문왈 너는 엇던 사람이 완디 감히 우리 치를 여혀보는다 호고 다라들거늘 밍냥 왈 나는 지니는 직이라 열위는 길을 빌니라 쇼루릭 왈 너는 아지 못호는도다 아무나 이리 디나는 사람은 길세를 니고 가나니 그디는 미로 전을 니라 밍냥이 쇼루라 드려 니로디 세를 쥬어든 나를 노화 보니라 서루릭 답왈 길세 돈을 만히 쥬어든 노화 보니라 니와 그러치 아니면 한 히라도 노치 아니호리라 밍냥이 마지 못혀여 금 투고를 버셔두고 겨유 버셔나 늑스를 보고 전일을 니룬디 (권10, 2a-b)

동양문고본에서는 맹량이 바로 목계영의 산채로 가는 내용이 새롭게 창작되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부분에서도 맹량이 목계영의 부하에게 금투구를 주어 난관을 벗어나는 장면이 원본의 내용과 유사하다. 이는 맹량이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그 다음 양종보가 목계영의 산채로 가게 되는 사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기에 이와 같이 창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동양문고본의 작자(또는 동양문고본의 저본의 작자)가 내용을 재창작할 때에도 작품 전체의 서사적 흐름을 고려하면서 서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동양문고본이 목계영과 관련된 내용을 재창작하는 사례 하나를 더 살펴보겠다. 양종보는 목계영과 혼인한 이후에 자신의 산채로 돌아가면서 그녀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와서 도와주기를 부탁한다. 이후 맹랑은 황룡목을 얻을 방법이 없자 목계영의 산채에 불을 내고 나무를 훔쳐 달아난다. 그것 때문에 목계영은 화가 나지만 부하들의 조언에 따라 화를 풀고, 오히려 송나라의 병영으로 가서 도움을 주기로 한다. 하지만 송영에서 육사가 목계영이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그녀를 꾸짖는다. 결국 목계영은 육사와 싸우게 되고 그를 사로잡아 자신의 산채로 데려간다. 이때 맹랑과 오랑이 찾아오는데 목계영은 맹랑에게 자신이 잡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육사를 풀어주고는 사죄를 한다.

六使怒曰 深恨此潑賤 勾引吾兒 致誤軍事 今日又來相惑耶 因統部兵五千 出軍前大罵 賤人好好退去 萬事俱休 若不收軍 汝命頃刻 桂英怒曰 好意來相助 反致凌辱之甚 遂舞刀躍馬 直取六使 六使舉槍交戰 經數合 不分勝敗 桂英欲生致之 伴輸而走 六使縱騎來追 一聲弦響 射中六使左臂 翻落馬下 桂英勒回馬捉之 此時岳勝 焦贊等皆不在軍中 無人救應 桂英令將六使解回原寨 忽山坡後旌旗捲起 一彪僧兵截出 乃是楊五郎與孟良來到 桂英列開陣勢 孟良拍馬近前 望見六使高叫曰 本官如何被捉 六使未答 桂英問曰 此是誰人 孟良曰 正是小本官父親 桂英驚曰 險些有傷大倫 亟下馬 著手下解開六使 扶於上座 拜曰 一時不識大人 萬乞赦有 六使曰 汝且起來相見 五郎等都合一處 合兵回至軍中 (36회, 516-517쪽)

동양문고본에서는 양육사가 목계영을 욕하고 둘이 싸우는 장면 등이 제거되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새로운 내용이 재창작되었다.

늑시 장중의 잇다가 목계형의 녁군호여 오물 듯고 제장을 거느려 영적허려
허더라 어시의 밍냥이 목가치를 즈불 지르고 황룡목을 버혀 가지고 오더산의
가 오랑을 보고 황룡목 어든 슈말을 전호고 나모를 쥘니 오랑이 즉시 황룡으로
칼즈로를 민드러 가지고 인호여 두타병 오빅을 썩거나리고 밍냥으로 더부러

오대산을 떠나 정히 헝헝여 진문의 넘헝디 이씨 목계형의 군과 만난지라 밍냥이 목계형을 보고 문왈 낭지 무삼일 발군헝여 이의 왓노 목계형 왈 니 이제 녁병헝여 송조를 도아 뇨병을 파헝고져 헝여 니르럿노라 늑시 왈 그디은 어디 사름인고 목계형 왈 너는 아지 못헝나냐 나는 곳 목계형이로라 늑시 밋쳐 답지 못헝여서 목계형이 무왈 니게 잡힌 사름이 었던 장슈노 밍냥 왈 이는 소쥬관의 부친이라 헝디 목계형이 날니 니로디 거의 인륜을 상홀 변 헝였다 헝고 말게 나려 절헝여 갈오디 일시 아지 못헝고 그릇 존위를 법헝여서니 바라건디 죄를 소헝쇼셔 늑시 왈 아지 못헝헝 일이니 무어시 히로오리오 헝고 오랑으로 더브러 합병헝여 (권10, 8a-9b)

이 새로운 내용에서는 육사가 목계영을 욕하고 시합하여 목계영에게 잡히는 장면이 없지만, 목계영은 육사를 잡았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원래 내용에 없는 맹량이 황룡목을 훔치고 오대산에 가서 오랑을 만나 그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다는 내용이 새로 창작되었다. 이 새로운 부분에서 육사는 맹량 등을 만나기 전에 이 여자는 누구지를 모른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목계영은 그녀에게 잡힌 장수가 양종보의 아버지 즉 그녀의 시아버지임을 알게 되자 육사를 바로 풀어주고 그에게 사죄하는 장면은 원본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내용을 재창작한 세 가지 사례에서는 모두 여성이 등장한다. 이 사례들은 여성들이 남성 주인공들과 시합하는 부분이 제거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특히 호연찬과 마씨는 부부이며, 목계영과 육사는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동양문고본은 그들이 서로와 시합하는 것이 가족 구성원 간의 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로 간주되기에 제거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의 창작 영웅소설과 대장편소설에는 여성영웅 즉 무예와 여러 뛰어난 재주를 지닌 여성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가족이나 자기 나라의 영웅들과는 싸움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양문고본 『북송연의』의 작자와 독자에게는 금두랑 마씨가 결투를 통해 혼인하는 내용, 시아버지와 욕을 주고받고 싸우는 여성의 모습은 익숙하거나 선호하는 내용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세책본 작품들 중에 영웅소설들만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상과 비슷한 변화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영웅군담 서사들을 다루는 선행연구에서 세책본의 영웅소설들은 ‘군담이나 영웅서사보다는 결연이나 가문 서사를

중시'하고, '중세 가족질서 이데올로기를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⁴⁶⁾ 동양문고본 『북송연의』역시 세책본이며, 번역소설이지만 같은 세책본 작품의 경향을 지니고 있다 할 수 있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겠다. 동양문고본에서는 간신 왕흠을 형벌하는 장면도 재창작되었다. 왕흠은 충신인 척하면서도 황제 옆에 있었던 간신이다. 그는 진실이 발견되자 도망가지만 양종보에게 잡혀온다. 황제는 그를 책망하고 왕흠은 말없이 죽는 것만 기다린다. 황제는 팔왕과 논의하여 다른 신하들을 경계하기 위해 왕흠을 잔인하게 죽이는 명을 내린다.

宗保差騎軍上船捉之 王欽急忙不能逃脫 竟被騎軍縛到岸 宗保解之而回 正是善惡到頭終有報 只爭來早與來遲 正值真宗設朝 文武皆集 近臣奏知 已捉得王欽回朝 帝令軍校拿進殿前 面斥之曰 逆賊屢在朕前獻讒 寡人優容過多 今若放汝走往他國 又將生患矣 王欽低頭無語 只乞早就刑戮 帝曰 怕汝奸賊不死耶 因問八工 當何以處之 八王曰 陛下可設大宴 會集外國使臣 皆得預席 將此賊碎剛凌遲 以助筵前一觀 庶使後人知懼 帝允奏 遂下命 著司官排列筵宴齊備 徵召外國諸臣 兩邊依次坐飲 行刑軍校將王欽縛於樁上 慢慢割下其肉 席中觀者 無不凜然 (43회, 555쪽)

이 사건들은 동양문고본에서 다음과 같이 재창작되었음을 볼 수 있다.

종비 흠을 잡아 말게 실고 경스의 도라오니 조회를 오히려 조회를 파치 아니흐 엇는지라 종비 드러가 체기 슈헌디 데 디회흐스 좌우를 도라보아 같오스디 이 역적을 짐이 저바린 비 업거늘 무단이 도슈흐니 심이 괴상헌지라 췌회 다스려 법을 정히 하리라 흐시고 법관으로 문죄하라 흐시니 법관이 명을 바다 마을의 도라와 좌를 정흐고 형구를 갖초와 전후 형적을 무르니 왕흠이 오히려 복초치 아니흐는지라 법관이 더로왈 그더 비록 조정 디신이라 이제는 당하죄인이라 엇지 직초치 아니흐여 형벌의 괴로오물 밧고져 흐느냐 흐고 형위를 크게 버풀고 치기를 직촉흐여 삼십 여당의 니르러 왕흠이 알푸물 건디지 못흐여 양탄왈 세시 전애라 엇지 인력으로 흐리오 이의 위관다려 같오디 형벌을 머추면 즉초흐리라 법관이 치기를 굿치니 흠이 "의 전후 불의지스를 일호도 숨히치 아니흐고 일"이 복초흐는지라 법관이 죠스를 밧고 이디로 슈달헌디 상이 초스를 보시고 디로흐스 농상을 치시며 같오스디 난신격지하디 무지리오마는 이 갖지 흥참헌

46) 엄태웅, “세책본 영웅군담소설의 서사 지향,” 『민족문화연구』 65(2014), 619.

도적은 본바 처음이로다 팔왕과 군신이 주왕 왕흥의 죄상이 일시도 노디치 못오리니 맛당이 쳐참하여 후인을 증계호쇼셔 상이 놀판으로 논죄하라 하시니 군신이 다시 고왕 왕흥의 죄상이 천지의 가득호오니 복원 성산은 발니 죽여 눈상을 밝키쇼셔 상이 윤희호스 왕흥을 동시의 능지처 참호시고 그 쳐즈는 원지의 위노하시다 (권12, 11a-12b)

동양문고본에서는 원래의 내용과는 달리 황제가 법관에게 명을 하여 왕흥을 문책하게 한다. 법관은 왕흥을 부추기며 형벌을 진행한다. 왕흥은 처음에는 바른 대로 대답을 하지 않다가 고문을 참지 못하여 형벌을 멈추면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고 자백을 한다. 법관은 그 자백을 받아 황제에게 보고하고 황제는 왕흥을 죽이고 그의 처자를 먼 지방으로 보내라는 명을 내린다. 이와 같은 악인 형벌의 패턴은 조선후기에 널리 유통된 여러 창작 고전소설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문고본 『북송연의』는 왕흥을 형벌하는 장면을 당대 유행한 작품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식과는 일치하게 변경하여 재창작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당대 작가 및 독자들이 악인 형벌에 있어서는 원래 내용보다는 이처럼 변경된 내용을 거부감 없이 받아주고 더 선호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동양문고본 내용의 재창작을 살펴보았다. 이 책은 원래의 내용을 조선 후기 소설의 작가와 독자에게 친숙한 내용으로 변화하여 재창작한 것임을 볼 수 있다. 먼저 동양문고본에서는 무예가 뛰어난 금두랑과 목계영은 남편 및 시아버지, 남편의 부하들과 싸우는 내용 및 여성들의 용맹하고 독립적 성격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제거되었고, 여성들이 이념적 가족 질서에 맞게 행동하는 새로운 내용들이 재창작되었다. 조선 후기 창작소설 특히 대장편소설에는 중세 이데올로기가 부각되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여성들이 등장한다. 따라서 조선 후기 작가 및 독자가 그 내용에 친숙하고 더욱 선호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양문고본에서는 악인을 형벌하여 죽이는 장면도 고전소설, 특히 그러한 장면이 자주 나타나는 대장편소설의 상식적 패턴에 따라 재창작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이것도 또한 작가 및 독자가 더욱 흥미롭다고 여기거나 낯익은 서술로 받아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동양문고본 『북송연의』의 내용적 변화들을 논의하면서 또한 이 책이 세책본이

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책본 작품들이 원본에 비하여 내용적 변화 및 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여러 번 언급되었다. 동양문고 『북송연의』도 내용적 변화가 많은 작품으로 이 선행연구의 논리를 또한 뒷받침하는 자료이다. 그리고, 이 책은 내용적 변화를 보이는 세책본들 가운데에 창작 소설들뿐만 아니라 번역소설들도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자료로도 가치가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동양문고 소장본 『북송연의』를 분석했다. 동양문고 소장 『북송연의』는 중국 『北宋志傳』의 국문 번역본으로 13권 13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02년에 사직동에서 필사된 세책본이다. 『北宋志傳』은 17세기 때부터 조선후기 문헌에서 나타나기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도 다른 유명한 소설들과 함께 여러 기록과 목록에서 언급되었다. 본고에서는 동양문고본 『북송연의』의 구성적 및 내용적 변화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먼저, 동양문고본은 원본에서 분계, 내용의 핵심적 정리 기능을 담당하는 회에 여러 변화가 나타난다. 50회 중에서 삼분의 일 분량의 회 제목을 제거하여 작품의 많은 분량을 회별 분계 없이 합쳐지게 했다. 몇몇 회의 제목은 원래 자리에서 옮겨 해당 회의 내용이 시작하기 이전 또는 시작한 후에 기록했다. 그리고 회의 원래 제목에 글자를 추가하거나 글자 위치를 서로 바꾸는 등 회의 제목을 오기한 경우들이 많이 확인되었다. 또한 동양문고본 『북송연의』는 내용적 변화를 만들면서도 해당 회의 제목을 변경된 내용에 맞게 바꾸지 않았다. 회의 내용을 변경하되, 제목을 원래 제목으로 유지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번역 소설에서는 회별 분류 및 회의 제목이 담당하는 내용의 핵심적 정리, 분계 등의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신에 동양문고본 『북송연의』는 조선 필사본 소설의 권수제, 권차, 필사기, 권책별 분계 등의 특징을 많이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국문으로 번역되어 유통되는 중국 작품이 점차 조선식의 권별 분류 및 각 권책이

갖추는 형식을 따르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다음으로, 동양문고본 『북송연의』는 적지 않는 내용적 변화를 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이 책은 해당 부분의 주제에서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여담, 초월적 요소, 대화, 시와 편지의 내용 등을 생략했다. 또한 작품의 서사적 흐름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을 유지하되 세세한 묘사 등을 축약했다. 서술은 사건이 이루어지는 과정보다는 그 결과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본래 내용을 제거하고 조선후기의 작가 및 독자에게 친숙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재창작한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다. 이 과정으로 인해 동양문고본 『북송연의』에는 조선 후기 창작소설에서 자주 나타나는 관념 및 패턴들이 개입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선후기에 명청소설의 국문 번역본들이 창작소설들과 함께 유통 되었으며 창작소설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동양문고본 『북송연의』의 분석을 통해 중국소설도 조선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형태, 구성, 내용적 면에서 현지화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참고문헌>

侯忠義. 『明代小說輯刊 第2輯 1: 南北兩宋志』. 巴蜀書社, 1993.

『북송연의』 동양문고본 13권 13책.

『북송연의』 장서각본 5권 5책.

『演慶堂漢文目錄 附諺文目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K2-4968).

김 영.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소장 한글 필사본 『남송연의』에 대하여.” 『중국소설 논총』 25(2007). 155-183.

민광동. 『중국고전소설비평자료총고』. 학고방, 2003.

민관동. 『중국고전소설의 국내 출판본 정리 및 해제』. 학고방, 2012.

민관동. 『한국 소장 중국고전소설의 판본목록 (소장처 별)』. 학고방, 2013.

민관동. 『중국 통속소설의 유입과 수용』. 학고방, 2014.

- 박재연 교주. 『복숭연의』. 학고방, 1996.
- 박재연 편. 『中國小說繪模本』.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3.
- 박재연. “윤덕희의 소설경람자.” 『문헌과 해석』 19(태학사, 2002). 207-216.
- 박재연. “조선시대 중국 통속소설 번역본의 연구 - 낙선재본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1993.
- 백진우. “일본 동양문고 소장 한국 고서에 대해: 자료 개관·연구 현황·연구 과제·특정적 면모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36(2012). 33-70.
- 심경호.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 온양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과 낙선재본 <옥원중회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3(1990) 169-188.
- 엄태웅. “세책본 영웅군담소설의 서사 지향 - 기존 연구 고찰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5(2014). 587-624.
- 유광수. “세책 <옥루몽> 동양문고본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 35(2012). 199-234.
- 유춘동. “일본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의 성격과 의미.” 『민족문화연구』 64(2014). 283-309.
- 이대형. “19세기 장편소설 ‘하진양문록’의 대중적 변모.” 『민족문화사연구』 39(2009). 28-56.
- 전상욱. “세책 대출장부 연구 1 - 세책 대출장부의 유형과 실상.” 『열상고전연구』 27(2008). 361-396.
- 정명기. “세책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서설적 이해 - 총량, 간소(간기), 유통양상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2(2001). 445-480.
- 정별설. “사도세자가 명해서 만든 화첩: 『中國小說繪模本』.” 『문헌과 해석』 47(2009). 126-135.
- 하경심. “중국 전통극 중 여성영웅형상 연구 - 양가장희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66(2011). 493-523.